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행복한 만남 성경: 요한복음 4장 4~14절

Tag:

5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원래 형)

6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섯 시쯤 되었더라

7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으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8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9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1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1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12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1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4:5-14)

오늘의 주제는 행복과 만족이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행복한 만남이다. 행복이란 모든 인생의 염원이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각자 처

한 곳에서 행복을 추구한다. 행복을 추구하는 욕구 때문에 자신이 처한 환경을 개발하거나, 환경을 개발할 수 없을 때는 자신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개발한다.

얼마 가지 않아 사람들은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게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 제도를 만들어서 자신의 행복은 극대화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은 제한하는 쪽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그러자 용감한 사람들은 보다 나은 환경을 찾아 나서게 되었고, 사회적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자신들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데 힘쓰게 되었다.

자 이제 당신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인지 점검해 보자.

그런데 이 모든 것에 파고드는 중요한 변수는 선과 악의 변수이다. 이 변수는 삶의 모든 영역과 개개인의 삶에 퍼져서 매우 다양한 양상을 띠게 한다. 사실은 선과 악의 변수가 개개인의 행복지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똑같은 조건에서도 이 변수 때문에 개인이나 집단의 행복지수는 변한다.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심리적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이 모든 복합적인 요인들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는 것이 이념이고 이념은 집단적 가치관이다. 단순히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한 착각에 불과하다. 돈은 모든 가치의 물리적 총화이기 때문에 쉽고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르다. (ex; '3만원이면 에티오피아의 비니엄이 한달동안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 당신이 3만원을 기부하면 비니엄 어린이의 손에 3천원이 쥐어진다면 큰 다행이다.)

그렇다면 진짜 행복이라고 할 만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만남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은 만남이다.

만남은 다른 여러 가지 행복을 주는 요인과는 (맛있는 음식이 주는

행복과는) 차원이 다른 행복이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행복한 만남에 관한 이야기다.

사마리아 여인의 갈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됨.

- 남편감을 다섯 번이나 갈아치울 정도로 만남을 통한 행복에 목말랐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1. 신분 율법주의로부터의 해방 경험

9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 신분 율법주의는 행복추구의 최대 걸림돌

- 오늘날도 신분 상승에는 상당히 큰 에너지가 필요함.

- 그러나 예수님은 신분 율법주의에서 사람을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독창적인 기회를 주신다.

- 그리고 그 과정이 매우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이다. 오늘 말씀처럼.

- 요즘 알라딘이라는 영화가 극명하게 이런 가능성들을 보여주었다. (디즈니 만화의 중요한 주제가 신분 율법주의에서의 해방이다. 성경의 중심테마이기도 하고.)

2. 하나님을 만남. 초월적인 존재와의 만남. 사람마다 자신의 신분을 초월하는 만남을 갈망한다.

- 이 여인은 단순히 유대인을 만난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다.

1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미 예수님께는 신분 율법주의에서의 해방에 대한 주제는 문지방에 불과하다.

-예수님은 곧바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바로 자신이 그 선물을 줄 수 있는 자임을 밝히고, 내가 너에게 그 선물을 주시겠다고 제안 하셨다. 매우 문학적이면서, 친절하고, 고귀하게, 자신의 신분을 여인에게 나타내 보이시면서 가장 좋은 제안을 하셨다.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기에 앞서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행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우물과 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려고 하심.

3.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만남

-먼저 예수님은 우물물과 영생하는 물을 대비시킴으로 사마리아 여인으로 하여금 과연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치셨다.

14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이 영생하는 물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라고 말씀하셨다.

-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우물물에서 영생하는 물로 가치관의 변화를 유도하심.

-이 영생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는 것. 예수님을 만날 때만 얻는 것.

4. 영적 리더를 만나는 행복(진리를 만나는 행복)

18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예언적인 말을 하셨고, 삶을 치유하는 말을 하셨다.

19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 해석. 자신 자신조차도 부정적으로 해석

하고 있는데,(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거짓말 임. 숨기고 싶은 나의 모습) 예수님은 그런 삶마저도 긍정적으로 해석하심.

-이 여인은 비로소 믿고 의지하고 올바른 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 진리 그 자체를 경험하게 됨.

5. 때를 분별하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됨.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게 되자, 곧바로 영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 평상시 궁금해 하던 것. 그러나 장소에 얽매여 있는 질문.

-예수님은 장소가 핵심이 아니라 역사관의 문제임을 제시하시며 하나님의 구원 파노라마를 설명하심.

23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자 이 여인은 자신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고백한다.

25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여행하셨는지, 이 여인을 왜 만나시려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게 된다.

6. 메시아를 만나 구원을 얻게 됨.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러자 이 여인은 즉시로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동네로 들어간다.

-무엇보다 반갑고, 절대적인 만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우리는 이 일을 위해 먼저 부름받은 자들이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기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2~46절

Tag:

42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3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45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

46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고전15:42-46)

-죽음에 대한 이해

-탄생에 대한 이해

-이 세상에서의 삶이 곧 영생을 위한 씨앗

-그러나 거듭남만이 영생이다.

-삶을 정리하라. 이사야의 말.

그 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38:1)

-임종예배란 이제 삶을 마감하고 주변을 정리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준비하는 과정.

-오늘날 연명치료가 임종을 방해하고 있는데, 연명치료 보다는 임종

치료가 중요하며, 하나님 앞에서 삶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치료가 필요하다.